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메타교육적 함의

박 미 영*

〈국문초록〉

퇴계 이황이 창작한 「도산십이곡」이 오늘날에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산십이곡」과 그 발을 통하여 퇴계가 1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의도했던 교육의 대상과 교육 목적, 교육방식과 내용을 살펴 당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이런 교육적 태도가 어떤 메타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규명하였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교육적 의도에서 창작하고 그 의도를 「도산십이곡발」을 통해 밝혔다. 퇴계가 의도한 1차 교육적 의미는 퇴계가 직접적인 교육자로서 시조라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문학교육이다. 대상은 아배 즉, 자제로 나아가 학문에 입문하는 초학자를 설정하였다. 교재는 당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래, 시조를 선택하였다. 이는 당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선택된 것이다. 노래의 교육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문학교육으로 교재의 내용은 퇴계의 평생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퇴계는 이와 같은 1차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학교육적 구도를 당대의 다른 유학자 및 후대인에게까지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 교육이론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메타교육적인 것이다. 퇴계는 본인의 삶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교육으로서의 메타교육, 학문 즉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적 태도에 대한 메타교육 등 다양한 메타교육적인 방법을 보여주었기에 퇴계의 작품과 삶이 지대한 교육적 가치를 오늘날까지도 지니게 된다.

핵심어 : 이황, 퇴계, 「도산십이곡」, 「도산십이곡발」, 메타교육, 시조교육

* 천안대

I. 서론

21세기를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지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의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자본으로서, 미래 사회의 우위를 결정하는 지표인 미래형 자본이기도 하다.¹⁾ 지식은 과거에 집적된 stock형 지식으로부터 주체의 활동이 강조되는 flow형 진행형적 지식으로²⁾ 가치가 전이되고 있다. 인간이 주체로서 지식의 중심을 이루고, 지식 또한 집적된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는 통합적 지식 혹은 자신이 판단하고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교육 또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지식의 새로운 통합과 생성, 흐름을 지향해야 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학계에서는 교육학분야만의 고유한 이론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³⁾. 그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 중요한 개념이 메타교육이다. 메타교육은⁴⁾ 인간의 내면적인 요청에 따라 잠재적인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게 하는 가르침이 성립하는 1차 교육 자체를 매개, 즉 교재로 하여 이루어지는 '2차 교육', '교육의 교육'이다. 이는 훌륭한 가르침은 가르치고자 하는 자 혹은 행위에 모범이 되고 성실한 배움의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자 혹은 행위에 모범이 되는 것이다. 즉 훌륭한 교육자는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교육행위에 모범이 되고 학문을 추구

1) 강창동, 『지식기반사회와 학교지식』, 문음사, 2003, 20-54쪽.

2) 설성수, 『지식활동분류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 출판부, 2000, 13쪽.

3)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a.

4) 이정연, 「퇴계 이황의 교육적 삶과 메타 교육」, 『교육원리연구』 9/1, 2004, 214쪽.

하는 훌륭한 태도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육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전시가의 시조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退溪 李滉(1501-1570)의 시조 「陶山十二曲」과 그 발인 「陶山十二曲跋」을 선택하였다. 「도산십이곡」은 노래를 매개로, 오늘날에 소위 고전시가라 칭하는 시조를 교재로 교육하고자 했음을 「도산십이곡跋」에 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퇴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자 의도하였는가 하는 시조 교육의 당대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이황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메타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여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친필로 썼으며 이것을 목판으로 새겨 도산서원에 전한다. 당대의 석학인 이황이 친필로 써서 남겼다는 점과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겠지만 「도산십이곡」과 「도산십이곡跋」의 가치에 대하여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철학적인 담론으로서나 문학론의 텍스트로서,⁵⁾ 예술담론으로서 시로서의 「도산십이곡」에 대한 연구 또한 성기옥의 최근 연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그 문학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의심할 바 없다.⁶⁾

-
- 5) 조동일, 『韓國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박미영, 「歷代詩歌論을 통해 본 時調觀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4.
- 6) 최진원, 「陶山十二曲攷」(I), 『인문과학』 13, 성대, 1984.
 _____, 「陶山十二曲攷」(II), 『도남학보』 7, 도남학회, 1985.
 _____, 「陶山十二曲攷」(III), 『인문과학』 14, 성대, 1985.
 최신호, 「〈陶山十二曲〉에 있어서의 ‘언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_____,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그리고 퇴계의 교육 사상 및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연구 또한 양적, 질적으로 모두 상당함에 이르렀으며,⁷⁾ 교육 텍스트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최근까지 논의하였다.⁸⁾ 따라서 문학작품을 매개로 하는 문학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고전 시가 작품 중심에 있는 작품으로 그 교육적 가치 또한 의심할 바가 없다. 이황의 「도산십이곡」 특히, 言學 편은 현재의 학습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평이한 언어로 심도있는 문제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다.⁹⁾ 특히 「도산십이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고전시가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오늘날의 교육자가 「도산십이곡」을 매개로 오늘날의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과제로 삼고, 「도산십이곡」이 문학작품으로서 교과서에 실려서 오늘날에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퇴계 이황이 누구를 교육대상으로 삼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였는가? 이황이 교육자로서 의도했던 1차 교육의 당대적 의미가 지니는 현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황이 이러한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누구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논의가 소홀했다. 즉 이황의 당대적 의미로서의 메타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현재적 가치를 규명이 요구된다 하겠다.

7) 정순목, 『退溪의 教育哲學-교육인간학적 고찰』, 지식산업사, 1986.

8) 이동경, 『陶山十二曲의 분석을 통한 退溪 教育 思想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한창훈,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도산십이곡〉을 예로 하여」, 『한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이정연, 「퇴계 이황의 교육적 삶과 메타 교육」, 2004.

9) 한창훈, 2000, 171-173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산십이곡」과 그 발을 통하여 퇴계가 1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의도했던 교육의 대상과 교육 목적, 교육방식과 내용을 살펴 이런 태도가 어떤 메타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산십이곡발」에 나타나 있는 교육대상과 목적, 교육과정을 통해 1차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교육의 매개 즉 교재인 「도산십이곡」에 나타난 배움의 내용과 의미를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퇴계가 「도산십이곡」과 그 발문을 통해 당시 베풀고자 하였던 2차 교육으로서의 메타교육과 문학교육적 기능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도산십이곡 발」에 나타난 1차 교육적 성격

나는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학문의 뜻을 깨우쳐 줄만한 師友가 없어서 수십년 동안 학문을 착수하고도 들어갈 길을 몰라 헛되이 생각만 하고 방황하였다. 때로는 눕지도 않고 고요히 앉아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는데, 마침 내 마음의 병을 얻어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증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만약 참된 스승이나 벗을 만나 아득한 길을 지시받았더라면 어찌 心力을 헛되이 써서 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얻은 바가 없기에 이르렀겠는가?¹⁰⁾

이와 같이 학문의 길을 인도해줄 스승을 열망하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배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지침서를 마련하려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에 「도산십이곡」과 「도산십이곡발」은 강한 교육적 의도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재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10) 嘗曰 余自少雖志學而無師友啓發之人 偃偃數十年未知入頭下工處 枉費心思 探索不置 或終夜靜坐未嘗就枕 扱得心恙 廢學者累年 若果得師友 指示迷途 則豈枉用心力 老而無得乎(「言行錄」卷1 學問 金誠一)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작품 「도산십이곡」과 그 창작의도가 담긴 「도산십이곡발」을 중심으로 퇴계의 교육적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도산십이곡발」 본문은 『陶山全書』內集 卷60 跋에 실려 있는 것이다.¹¹⁾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문을 내용단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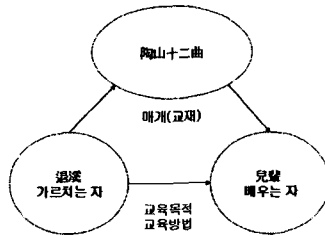
- (1)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 (2) 吾東方歌曲 大低 多淫哇如不足言
- (3)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 (4) 惟近世 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 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 (5)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閒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 (6)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 (7) 故嘗略倣李歌 而作爲 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 (8)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机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 (9) 顧自以踪跡頗乖 若此等閑事 或因以惹起鬧端 未可知也 又未信其可以入腔 調諧音節與未也 姑寫一件 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覽者之去取 云爾
- (10) 嘉靖四十四年 歲乙丑暮春既望山老書

위 글의 (8)을 통하여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欲'이라 하여 '-하고 싶다' 혹은 '-하고자 한다'는 말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1) 李滉, 「陶山十二曲跋」 권60, 『陶山全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94b. 앞으로 李滉 글의 인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陶山全書』 1-4를 이용하며, 이 책에서의 인용은 「도산십이곡발」 권60, 3-294b로 약식표기한다.

아배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고 자신은 책상에 기대어 들으며 역시 아배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춤도 추게 하여 비루한 것을 씻어버리고 감동하여 마음이 통하게 하여 노래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유익함을 교환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산십이곡」이 교육적인 의도로 창작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교육의 1차적인 구조로,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적절한 교재를 매개로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다. 즉 교육자로서의 퇴계는 배우는 자,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교육 대상을 설정한다. 이에 적절한 「도산십이곡」이라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의의를 「도산십이곡발」에 밝힌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퇴계가 교육자로서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각각 그 사람의 자질에 따르는 것은 그 자질에 가까운 것에 따라 성취시키려 하였기 때문”¹²⁾이라 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하는 내용,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도산십이곡」과 그 발에는 더욱이 퇴계의 의도성이 내포된

12) 聖人教人 各因其材 所以因其材之近 而成就之(「言行錄」卷3 告君陳誠 堂後日記).

교육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도산십이곡발」을 중심으로 퇴계가 교육대상으로 삼았던 배우는 자, 교육자로서 베풀고자 했던 교육 내용,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도산십이곡발」에서 제시하고 교재로 제작한 「도산십이곡」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배우는 자로서의 교육대상

먼저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교육하고자 했던 교육대상에 대해 살펴보자. 그 대상은 위의 본문 (8)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문면으로 통해 볼 때 이황이 교육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兒輩”이다. 이 아배들에게 「도산십이곡」을 익히게 하여 밤낮으로 부르게 하고자 함이 「도산십이곡」을 지은 목적이 된다.

아배는 퇴계가 지은 노래인 「도산십이곡」을 익혀서 부르는 가창하는 주체이자 퇴계가 교육대상으로 삼는 자로서 중요한 용어이다. 그러면 이 아배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兒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兒, 孺子也”라고 하며 “孺, 乳子, 年少”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玉篇』에는 “兒, 男曰兒, 女曰嬰”라 하여 나이가 어린 아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廣雅』에는 “兒, 子也”, 兒孫은 “子孫”이라고 하여 아들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¹³⁾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동들 혹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¹⁴⁾ 낮은 사람, 비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형택은 아배란 자질이나 문생이라 하는데¹⁵⁾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¹⁶⁾ 그러면 퇴계 이황의 다른 저작들 속에서는 아배를 어떻게 사

13) 『대한화사전』 1-1028. 및 『대한화사전』 3-893.

14) 대부분의 번역에서 그 실체를 지적하지 않고 아이들이라 번역하고 있다.

15) 임형택, 『국문시의 전통과 도산십이곡』, 『한국문학사의 시각』, 60쪽.

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① 이 일로(논자주:박가네 혼사)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비난받은 것이 적지 않았다. 以一處事 吾家兒輩 得人怨罵 不少(「答李宏仲」 권51, 3-98b.)
- ② 7월21일에 주신 글은 銘文이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 편에 함부로 부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가지고 왔으므로 9월 초순에야 비로소 받았습니다. 七月二十一日辱惠書 兒輩 以銘文之故 不敢輕付使人 至九月初始得(「答奇明彦」 권24, 2-104b.)
- ③ 줄기와 줄시(논자주:도산잡영과 병기)가 공에게까지 들렸다니 깊이 송구스럽습니다…책 상자에 놓아두고 일찍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拙記拙詩 聞徹几間 深爲汗悚…藏之篋笥 未嘗以示兒輩(「答李仲久」 권11, 1-305d-306a.)

①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이라 하여 아들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일컬을 수 있다. ②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주로 ‘俸’인데¹⁷⁾ 내용으로 보아 기명언의 편지를 가져온 아배는 아들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에서도 아이들은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의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다. 아들들은 이황 저작의 일차적인 독자이다. 이렇게 볼 때 평소에도 아들들이 저작을 돕고, 저작의 일차 독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본문에서 아이들이란 아들들임을 확신하게 된다.

아배와 비슷한 용어로 ‘兒’나 혹은 ‘兒’자 합성어가 있다. ‘篤兒’나 ‘安道孫兒’, ‘兒子’와 같은 것들인데 아들이나 손자를 지칭할 때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이들의 복수가 兒輩라 할 수 있다. 반면 이황이 하인을 칭하는 말은 奴, 僮奴, 奴僕, 奴婢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한다.¹⁸⁾

16) 성호경, 『조선전기시가론』, 새문사, 1988, 80쪽 주64.

17) 편지에 “俸人, 俸至, 俸來”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여 모두 제시할 수 없다.

18) 奴人相對 檢奴輩等事(「與完姪」 권57, 3-224cd.), 家僮(「答琴聞遠」 권52, 3-109b.), 蒼豆(「答李斐彦」 권55, 3-180b.), 僮奴輩(「答鄭子中」 권37, 2-399b.), 遣僮驢(「答趙士敬」 권31, 2-254d.)

아들이나 조카들에게 내린 편지의 다수가 집안의 재물을 단속하고, 노비를 다스리는 일에 관한 것으로 노비에 대한 위의 호칭이 아들이나 조카들에게 내린 편지 전편에 사용된다. 따라서 아배란 축자적인 의미로서는 아이들이며, 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子姪 즉 아들이나 조카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대상이 되는 이들의 구체적인 성격은 퇴계의 생애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퇴계는 「언행록」의 학문편을 통하여 “항상 말하기를 내가 어릴 적에 배움에 뜻을 두어(嘗言 吾少時有志於學)”¹⁹⁾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학문편에서 “少”라고 하는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나이가 언급된 것은 책을 통해서이다. 즉 퇴계선생의 학문, 배움의 시작을 “12세에 논어를 배웠다고 하는 언급”으로²⁰⁾ 볼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나이에서부터의 子姪 들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퇴계가 배움에 뜻을 두고 입문한 초학자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으로부터 중학생 정도의 나이를 뜻하는 것이다.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보면 1학년 2학기 현대시조 1수 이외에는 5학년 1학기 국어읽기에서 〈하여가〉와 〈단심가〉의 고시조 2수와 현대시조 2수(5학년 2학기), 고시조 2수와 현대시조 1수(6학년 2학기) 등 7수가 5, 6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 시조임을 볼 때 현재 시조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와도 비슷하다 하겠다.

2. 가르치는 자의 교육론

퇴계는 가르치는 자로서 시조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고 그 교육적 효과까지 고

19) 「言行錄」卷 1, 學問. 李德弘, 金誠一, 鄭惟一, 金富倫 등.

20) 「言行錄」卷 1, 學問. 李安道.

려하고 있다. 이또한 본문 (8)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8)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 ①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机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 ②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 ③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①에서는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조식으로 익혀 노래 부르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6)에서 말한 바와 같이 “欲歌之” 즉, “노래를 하려고 하면”이라고 하여 노래라는 향유방식을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본문의 (5)에 의하면 퇴계는 평소에 한시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배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시의 “詠”이 아닌 ‘노래’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문면 (8)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교육대상인 아배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自歌而自舞而蹈之”,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도 부르고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땅을 구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詩-歌-舞蹈라는 동일 표현 선상에서 논의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詩와 歌는 본래 같은 발출 구도 속에서 그 감흥 정도에 따라 詠 혹은 歌, 舞蹈로 이어는 향유 방식을 지닌다. 즉 마음속의 뜻이 말이 되어 나온 것이 시이고, 그 감흥이 더 깊어질 때 말이 절주를 가지게 되어 노래가 되며, 그 감흥정도가 더 커지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이다.²¹⁾

21)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 ① 詩란 뜻의 가는 바이다. 마음에 있을 때는 뜻이고 말로 하면 시이다. 情이 흥중에서 움직여 말에 드러난 것이다. 말로 부족하므로 嗟歎하며, 차탄이 부족하므로 노래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노래로 부족하면 저도 모르게 손은 너울거리고 발을 구르게 된다. 詩者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

詩文이 道를 신는 도구이며, 수양과 교화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載道論의 입장에서 보면²²⁾ 감동이 크게 표현된 것일수록 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황은 詩의 詠보다는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歌의 향유 방식을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노래를 익히는 반복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래로 외우고 부르는 사이에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 시조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학습자가 시조 작품을 바람직한 방향에서 내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 실천하는 일과²³⁾ 다름 없는 교육적 실천이다. 다만 단순히 문학을 시로 읽고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노래”라는 형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현대 문학교육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노래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노래자체의 내면화를 통해 목적하는 바는 마음의 비루한 바를 씻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목표가 올바른 인성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산십이곡발」의 전반부 (2)(3)(4)에서 당대 유행하고 있는 노래 내용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 (4)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래의 내용을 온유돈후한 實로 설정함으로써 이것이 내면화되어 마음의 때를 씻어주게 됨으로써 본래의 순선한 마음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 <훈민가> 등을 통해 문학의 교육성을 교훈성에서 찾고 있다. 교훈성이 외재적인 교육 목적을 중시하는 것이

舞之 足之蹈之也(『毛詩』「大序」).

- ② 노래한다는 말은 길게 말한다는 것이다. 기쁜 일이 있으므로 말하는 것이고, 말로는 부족하므로 길게 말하며, 길게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므로 영탄하며, 영탄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므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너울거리고 발을 구르게 된다. 歌之爲言也 長言之也 說之故言之 言之不足 故長言之 長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禮記』「樂記」).

22) 졸고, 「본문분석에 의한 역대시가론의 시조관 연구」, 1994, 66-75쪽.

23) 허왕옥,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219쪽.

라면 교육 작용은 내발적인 목적, 형성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즉 문학을 통하여 어떤 지식을 갖도록 한다거나 윤리를 전달하는 경우가 문학교육의 교훈성에 해당한다면, 문학 자체의 수용과 내면화를 통해 문학의 역동적인 작용이 개인의 내부에서 통합되는 경우를 문학의 교육작용이라고²⁴⁾ 할 수 있는데 퇴계는 바로 인성교육을 목표로 이 교육 작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③에서는 歌者와 聽者 사이에 유익함을 교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 결과로서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교재인 「도산십이곡」을 노래하는 가자와 그를 듣는 청자는 融通하는 物我이며, 交의 관계의 주체이다. 본문에서 歌者는 兒輩, 聽者는 退溪 自身이다. 이 둘 사이에는 신분이나 계급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다만 歌와 聽이라는 시조를 향유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노래를 부르는 자와 노래를 듣는 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시조를 향유하고 그 효능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익함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고 받는 것을 “交”라 하였다. 交는 상하관계 혹은 “賢愚”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높은 품위에서 낮은 품위로 흐르게 되는 教 혹은 教化와는 다르다. 이황에게 있어서 交 혹은 教化란 다음과 같다.

가르침이란 반드시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達한 後에야 그 가르침에 뿌리가 있어서 가히 멀리 퍼질 수도 있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⁵⁾

가르침이란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뤄지는 것이다. 詩教라는 말을 표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본문 (4)에서 시

24) 김덕현, 「시조문학의 교육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사립어문연구』 15, 사립어문학회, 2005, 187-188쪽.

25) 教必於上而達於下 然後其教也 有本而可遠可長(上沈方伯 권9 1-257a).

의 내용으로 '은유돈후'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시교를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교는 위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달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의 '爻'는 시교를 통한 對民教化라는 통념적인 의미보다는 도학적을 지향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노래를 통해 유익함을 서로 교환하는 데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교육자의 인격이나 지적 능력을 인정하여 평등한 관계속에서 소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호작용 하는 속에서 대등하게 교환할 수 있는 益이란 다음과 같다.

大賢이 심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노닐고 쉬는 때와 사람을 대하고 사물에 응접하는 자리에, 단서를 일으키는 정취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여 눈앞에 그려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한때의 문하에 모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당 위에서 스승을 모시고 조용히 주선하며 수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혹 때로 이런 경관, 이런 물건,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 황홀히 그분의 기침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기뻐하고 흔쾌히 마음에 맞는 생각이 있게 되면, 古賢을 사모하고 道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마음을 도와 發하게 될 것이니 이로움이 작겠습니까.²⁶⁾

이익됨, 더함이 되는 것이란 글을 통하여서만이 아닌 대인의 품모를 생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益은 옛 성현을 사모하고 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마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益은 물리적이나 사적인 利益이 아니라 도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 혹은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26) 欲見大賢 尋常言動遊息之際 向人應物之頃 興緒情味之爲如何 而目想心追 卽宛然若如一時 及門諸人陪侍從客周旋酬應於一堂之上 或時遇此景此物此人此事 況若聆其聲咳 睹其儀刑 而不覺有悟悅欣適之意 則其所以助發其慕古嚮道 進進無己之心者 爲益豈少耶(「答南時甫」 권16, 1-392ab.)

이는 퇴계가 교육자로서 피교육자에게 시조의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피교육자가 적극적으로 익히고 實演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적인 화합이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교육자와 서로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상호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서 교육자가 지니고 있는 그 품격 전체를 함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된다. 세대간의 가치나 이념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노령화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세대간의 교류작용과 평생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교재로서의 「도산십이곡」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매개해주는 자료가 바로 교재이다. 퇴계는 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론을 펼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인 자신과 대상을 매개하는 1차 교육의 교재로 제작한 「도산십이곡」의 성격은 「도산십이곡발」의 본문 (2)-(7)까지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재의 근본적인 성격은 교육방법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래”이다. 당시에 많은 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 (2)-(4)를 통해 밝히고 있다. 즉 당대 사람들이 즐기던 노래의 실상을 셋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본문 (2)에서 볼 수 있듯이 당대 사람들이 즐기던 「쌍화점」과 같은 동방가곡이 너무나 음란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본문 (3)에 제시되

고 있다. 문인이라는 사람들, 즉 지식층에서 즐기고 있는 「한림별곡」같은 것이 있으나 금호방탕하여 군자들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4)에서 「이별 육가」와 같이 조금 괜찮은 것이 유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공손치 못한 뜻이 있어서²⁷⁾ 의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재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퇴계는 이렇게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노래 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에 합당한 새로운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다. 당대 문학교육의 교재로서 즉 詩敎의 교재로 통용되고 있었던 소위 漢詩보다 유행하고 있는 당대의 노래로 교재를 삼겠다는 획기적인 의도이다. 즉 자국 창작 노래이며 당대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따른 노래로서 과거의 것도 외국의 것도 아닌 당대의 문화와 교류하고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교재를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퇴계가 작성한 교재가 바로 「도산십이곡」이다. 교재의 의도는 이미 소제목에서 알 수 있다. 즉 〈言志〉와 〈言學〉이라는 소제목은 배우는 자의 태도와 차례에 대한 언명이다. 퇴계는 항상 배우는 자는 먼저 立志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²⁸⁾ 입지 여하에 의하여 어떠한 사람도 성인과 같을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²⁹⁾ 따라서 언지는 말 그대로 뜻을 세우며, 그 다음에 언학으로 배움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 言志 : 삶의 선택 방법 보여 주기

먼저 퇴계는 〈言志〉편을 통해 삶의 선택 방법 보여주고 있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言志〉편 첫 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27) 줄고, 1994, 87-89쪽.

28) 必以立志爲先(「言行錄」, 卷 1 敎人, 金粹記).

29) 先須立志以爲舜何人也 余何人也 有爲若亦是(「進聖學十圖節」 권7, 1-190c).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더호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호료
흐몰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호료 <언지 1, 2292>³⁰⁾

주지하다시피 초장은 이방원의 <하여가>를 연상케 한다. “이런들 저런들”이라고 하여 방임하는 것 같지만 이방원의 <하여가>에서 또한 국가의 흥망이나 생명의 가부를 놓고 선택을 하는 뜻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와 ‘저렇게’는 삶의 지향성에 대한 심각한 선택을 요구한다. 중장에서 “이러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퇴계가 선택한 삶으로 종장의 “천석고황”이 함축하고 있다. 즉 천석으로 표현되는 자연, 자신이 선택한 삶이고 저렇게는 이에 대응하는 세인들이 “중계”여기는 삶이다. 이에 대해 세인들의 “바보같다”는 비난이 있다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지의 천명이다. 자신이 선택한 이런 삶과 세인들이 가치를 둔 저런 삶, 어쩌면 발문의 (9)에서 자신의 행적이 어긋났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의 선택에 대해 세인의 비난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의 두 번째 수에서부터는 선택한 삶의 지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煙霞로 지블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너
이등에 裨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언지 2, 2033>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올흐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언지 3, 1713>

30) <陶山十二曲> 言志 一, 심재완(1972),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2292번. 앞으로 「도산십이곡」의 인용은 『교본역대시조전서』에 의하며 <언지 1, 2292>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삶을 선택한 퇴계는 천석고황의 구체적인 모습인 “煙霞로 지
 블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 聖代에 病오로 늘거가되”라고 노래한
 자연 속에서 허물없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 名利榮達에
 급급한 학문, 즉 文才나 宦路에 얽매이는 “저런” 삶이 아니라 허물없이
 사는 인간다움, 즉 도의심에 근거를 둔 삶으로 뜻을 두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순풍이 죽었다는” 세상의 통념은 거짓말이며, 스스로 가치를
 둔, 목표로 삼은 인간다움에 대한 확신은 진실이라고 말하며 이런 삶을
 선택하거나 이런 삶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속일 리가 없다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퇴계가 「언행록」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³¹⁾

이런 삶을 선택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신은 다음의 두 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들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을 더욱 낫디 못호애 <언지 4, 2246>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有水ㅣ로다
 때 만호 굴머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밋숨 호는고 <언지 5, 1445>

여기서 언급된 산, 곡, 대 등은 도산서원 근처의 실경이라고도 한다.³²⁾
 퇴계가 언급하고 이 좋은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는 幽蘭이 의미하
 는 바에서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퇴계의 「언행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1) 先生謂在座諸人曰 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取科才非儒也 因歎曰世間許多
 英才 混泊俗學 更有甚(「言行錄」, 論科學之弊, 鄭士誠記).

32) 성기욱, 2001, 257-259쪽.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君子の 學問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 이른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저 장경부가 말한, ‘위하는 바가 없이’하는 것이다. 우거진 숲 속에 있는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피우지마는, 스스로는 그 향기로움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군자의 자기를 위하는 뜻에 꼭 맞는 말로서, 마땅히 깊이 본 받아야 할 것이다.”³³⁾

군자는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있음, 즉 자신의 도의적인 태도를 굳건히 하는 “爲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리학적 인간형성의 궁극 목표가 君子이며 그 태도는 바로 이런 삶을 몸소 보인 “미인”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 미인은 임금이 아닌 이런 삶을 실천한 “古人” 혹은 고인 가운데서도 특히 朱子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³⁴⁾

이런 군자로서의 지향점을 두고 벼슬을 버리고 온 퇴계 눈앞에 펼쳐진 산과 물, 이 자연 속에서 갈매기까지 어우러져 있다. 이런 가운데 희디흰 망아지를 탄 賢者, 늦게야 벼슬을 버리고 돌아온 은자로서³⁵⁾ 여기 말고 어디 다른 곳에다 마음을 두겠느냐고³⁶⁾ 하여 선택한 삶의 길을

33) 先生曰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一蘭草 終日薰香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言行錄」類編 教人 李德弘).

34) 한형조, 「幽貞,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 『퇴계학보』 111, 퇴계학연구원, 2002, 163-172쪽. 이 “彼美一人”에 대해서는 성기옥 선생이 논한(2001, 2002) 바와 같이 <언지 4>와 <언지 5>를 함께 해석하여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나 학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朱子라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35) 『詩經』〈白駒〉〈小雅〉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 勿金玉爾音 而有遐心

새하얀 망아지가 저 깊은 골짜기에 있어 싱싱한 풀 한 다발을 먹이는데 그 사람은 구슬과 같네.

당신의 명성만을 금옥처럼 여기어 나를 멀리 하는 마음을 갖지 말도록 하오.

36) 성기옥, 2001, 251쪽. 주 22에 의하면 <언지 5>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때 퇴계가 뜻을 둔 지향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

가겠노라고 한번 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퇴계에게 자연이 안겨주는 것은 바로 좋은 흥취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 사름과 흥가지라
흥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 <언지 6, 2999>

수많은 꽃과 나무가 산을 수놓고, 끝없이 흐르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가득히 차는 달빛 등등 계절마다 태를 달리하는 풍경과 하늘엔 새가 날고 연못엔 물고기 뛰는 活潑潑하는 생명력이 바로 놀라운 佳興 자체이다.

위와 같이 볼 때 퇴계가 이 <언지>라는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본인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태도”이다. 선택한 삶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도의심에 근거하는 학문적 자세로서 자연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피교육자들에게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과목표으로서의 “言志”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을 존속시키며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³⁷⁾ 실천 덕목에 대한 풀이 즉 <오륜가>나 <훈민가>와 같이 덕목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선택과정과 결단에 대한 방법론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퇴계 스스로가 학문을 하는 수련자로서 학습욕구에 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고한 학습목적관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다.

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37) 박인기, 「문학교육과정 개념의 이론적 함의」, 『선청어문』 21,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3, 26쪽.

2) 言學 : 공부 방법 보여주기

天雲臺 도라 드러 玩樂齋 蕭洒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하애라
이 됴에 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 <언학 1, 2776>

천운대와 완락재가 위치한 자연과 그 가운데 있는 만권의 책,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상보적이며 뉼래야 뉼 수 없는 관계이다. 뜻을 세운 곳, 선택한 삶을 구현하는 현장이 자연이라면, 만권으로 표현되는 배움의 원천으로서의 책은 지식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다. 책을 읽고 끊임없이 공부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한다. 이런 둘을 함께 즐기는 일이 풍류이며 학문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퇴계가 늘 古人과 만남의 매개로 삼은 것이 古人이 남긴 糟粕, 즉 만권의 책이었다. 이를 두고 율곡은 溪上에서의 퇴계의 살림을 “두어 칸 집에 책 천 권”이라고³⁸⁾ 요약했다. 이것이 퇴계의 가진 바 전부였다는 말이다. 또 퇴계는 10대에 이미 만권서를 읽었다고 한다.³⁹⁾ 이와 같이 책을 사랑하는 태도, 책을 즐겨 읽는 태도가 모든 배움의 근원임을 말하는 것이다.

雷霆이 破山하야도 聾者는 못 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 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굴디 마로리 <언학 2, 662>

38) 活計經千券 行藏屋數間(「瑣言」, 『栗谷全書集』, 雜著 14-39.)

39) 19세 지은 시에 의하면 그때 이미 만 권의 책읽기를 즐겼다고 한다.

獨愛林廬萬卷書 숲 속에서 홀로 만권 책 읽기를 즐겨

一般心事十餘年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십여년

邇來似與源頭會 이즈음에 들어 源頭와 마주친 듯

都把吾心看太虛 내 마음 전체로 태허를 바라본다.

「西厓本 退溪先生年譜」(정순목(1992), 『退溪正傳』, 지식산업사, 291쪽.)

눈과 귀를 열어두고 늘 깨어 있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의식의 자각 상태를 말한다. 이런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일상성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고 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뇌성 소리, 중천에 떠 있는 밝은 태양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진리, 즉 진리가 가까이 있는 데도 다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로서의 자각이 전제되면 진리는 쉽게 향상, 일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봐
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파 잇너
녀던길 알파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언학 3, 187>

위 시조에서는 구체적인 진리의 습득과정이 나타난다. 책을 통해 만나는 고인들, 혹은 그들이 제시하였던 방법을 통해서 자신도 그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스승의 존재에 의해서보다는, 이미 검증받고 누구에게나 스승이 될 수 있는 옛 성현들을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성현들이 이미 제시해 놓은 길이 있기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當時에 녀든 길홀 몇 헛를 보려 두고
어디가 돈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나 녀되 모습 마로리 <언학 4, 799>

이와 같이 삶을 선택하였지만 또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릇되었다는 것은 평생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됨을 노래한다.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학문의 뜻을 깨우쳐 즐만한 師友가 없어서 수십년 동안 학문을 착수하고도 들어갈 길을 몰라 헛되어 생각만 하고 방향하였다. 때로는 눅지도 않고 고요히 앉아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는데, 마침 내 마음의 병을 얻어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만약 참된 스승이나 벗을 만나 아득한 길을 지시받았더라면 어찌 心力을 헛되어 써서 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얻은 바가 없기에 이르렀겠는가?⁴⁰⁾

다음 두 수의 시조는 본인이 지향점으로 내세운 뜻을 두었던 변함없는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다.

靑山는 옛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언학 5, 2868>

愚夫도 알며 헛거니 괴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하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니 어렵거냇등에 늙는 주를 몰래라 <언학 6, 2185>

<언학 5>에는 진리 습득의 구체적인 태도는 자연에서 찾고 있다. 청산의 항상성과 유수의 지속성 즉 배움의 태도는 언제 어디서나, 쉽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즉 끊임없는, 늙는 줄을 모르도록 힘써 꾸준히 평생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핵심이다. 세운 바의 뜻, 변함없는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언학 6>에서는 이러한 태도의 실천은 쉽고도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 下愚라도 힘쓰면 마땅히 사람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聖賢이라고 하는 上知者라도 자신의 바탕만 믿어 끊임 없는 정진, 存養省

40) 嘗曰 余自少雖志學而無師友啓發之人 偃偃數十年未入頭下工處 柱費心思 探索不置 或終夜靜坐未嘗就枕 扱得心恙 廢學者累年 若果得師友 指示迷途 則豈枉用心力 老而無得乎(「言行錄」卷1 學問 金誠一).

察과 眞知實踐이 없다면⁴¹⁾ 사람됨의 길을 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부가 쉽 없는 배움의 길에 들어서면 성현과 다름없게 된다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계는 당대의 유행하는 노래를 통한 시조교육을 시도하였다. 본인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 노래교재 또한 마련하였다. 노래이라고 해서 그 노래의 격조가 낮은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을 담고 진지한 학문적 지향성을 보여주어 교육적 품위를 높이는 것이다.⁴²⁾ 나아가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배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 평생 정진하는 평생교육으로의 인도에 대한 가르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4. 메타교육적 성격

요즘 교육학계에서는 교육학분야만의 고유한 이론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⁴³⁾ 그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 중요한 개념이 메타교육이다. 메타교육은⁴⁴⁾ 인간의 내면적인 요청에 따라 잠재적인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게 하는 가르침이 성립하는 1차 교육을 매개 즉 교재로 하여 이루어지는 ‘2차 교육’, ‘교육의 교육’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육의 품위를 가진 주체와 낮은 수준의 교육의 품위를 가진 주체가 만나, 일정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후진의 교육품위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41) 정순목, 1986, 176쪽.

42) 장상호, 1997b, 215쪽.

43) 장상호, 1997b.

44) 이정연, 2004, 214쪽.

훌륭한 가르침은 가르치고자 하는 자 혹은 행위에 모범이 되고 성실한 배움의 태도는 배우고자 하는 자 혹은 행위에 모범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퇴계가 의도했던 교육은 퇴계가 교육자의 입장에 서고, 아배로 표현되는 자제들에 대해 시조 「도산십이곡」을 교재로 교육한다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적인 구도인 1차 교육이다. 퇴계가 실시했던 1차 교육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성인집단 즉 제자들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시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이미 그 발문에서부터 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본문 (9)이다. 본문 (9)는 다음과 같이 퇴계가 “또”, “또”라고 하면서 세 문장으로 말을 부연하고 있다. 이 부연 속에 새로운 교육대상들을 포괄해 나간다.

- ① 願自以踪跡頗乖 若此等閑事 或因以惹起鬧端 未可知也
- ② 又未信其可以入腔調譜音節與未也 姑寫一件 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 ③ 又以待他日覽者之去取云爾

①에서는 우선 스스로 한 일이 시끄러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우려는 종적이 어긋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표준을 두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말이다. 이황이 스스로 한 일이란 바로 「도산십이곡」이라는 시조를 짓고 또 거기애다 발문을 지어 부친 일이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평소 이황의 생각에 비추어⁴⁵⁾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황이 이상으로 삼고 그 경지를 추구하는 옛 현인들의 일과

45) 옛날의 학문을 회고할 때 망연히 꿈처럼 희미하기만 하며, 세속에 호응하고 남을 따라다니니 항상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을 뿐,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어 옛 현인들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받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回首舊學 茫如夢迷 應俗循人 每有自失之愧 頓無由中之樂 不惟得罪於古賢 亦且獲譏於今世 奈何奈何(「答琴聞遠」 권52, 3-106bc.)

어긋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어긋났다는 것이다. 첫째로 볼 때는 옛 현인의 준적에 의해 볼 때 자신이 노래를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라면 이황이 지향하는 바, 시조를 통한 교육 등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적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어긋나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한글로 시조를 지어 교육하고자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황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 세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겪고 있다. 명종왕후가 승하한 후 중 보우에 대해 상소한 일을 이황이 주도하였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이황이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시문을 전파하는 일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삼고 있다.⁴⁶⁾ 이로 볼 때 당대 이황의 詩文이 문학생들에 대한 감화력이 아주 컸으며, 세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자신의 본분이 道學者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道라는 본이었기 때문에 末로 생각하는 詩文으로 말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도산십이곡」이 이황이 우려했던 대로 세간에 말이 되기도 했다. 禹景善이 「도산십이곡」을 책으로 엮으려고 가지고 가자, 이황이 우려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도산십이곡」을 정식으로 거론한다.⁴⁷⁾ 이것이 「도산십이곡 발」이 지어진 다음해인 1566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세간에서 「도산십이곡」을 한글로 지었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

46) 이 비난(을축년 상소일:1565년)은 어느 편이든 마음에 들 것은 못 되지만 다만 “후생을 접하고 시문을 전파한다.”는 등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此謗則兩不足掛懷 但接後生播詩文等語 雖非我本意(「與安道孫」 권57, 3-215d.)

47) 그 시문:(원주)陶山曲은 다른 사람 때문에 걱정한 것이지 공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니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其詞:陶山曲 只爲他人慮耳 公必無是 不復見還(「答禹景善別紙問目」 권45, 2-542a.)

으며, 48) 「도산십이곡」을 모범으로 많은 시조가 창작되었기에⁴⁹⁾ 그 영향력 즉 시조를 매개로 펼치고자 했던 퇴계의 의도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에서는 시조의 완성도를 우려하는 겸사로 시작하여 「도산십이곡」을 ‘自省’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본문 (8)의 “欲”자는 아배들에게 부르게 하고자 “의도했던 것”이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었기에 “자성”을 제시한 것이다. 자성이 지향하는 의미는 퇴계의 학문론인 바로 ‘爲己之學’⁵⁰⁾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만든 교재와 그 내용은 자신이 평생동안 한시도 잊지 말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자신을 위한 교재이기도 한 것이다.

③에서는 “뒷날에 보는 자”들이 「도산십이곡」을 잘 평가해 줄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당대의 평가에 개의치 않으며 나아가 세간의 비난을 넘어서 「도산십이곡」의 가치가 지속될 것을 확신하는 말이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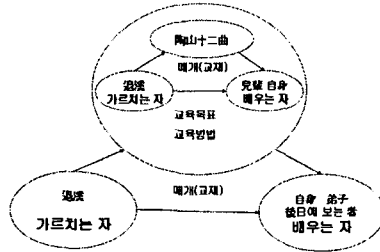
48)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陶山十二曲」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잘 되었다. 그러나 방언을 섞어서 속되어 우아하지 못하니 반드시 함께 이것을 취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대저 道가 있는 곳이라면 시와 가가 어찌 귀함을 달리 하겠는가? 或謂陶山十二曲 佳則佳矣 然而雜以方言 俗而不雅 不必拜取於此 是不然矣…夫道之所在則 詩與歌奚異所貴乎(申益愧, 「次來卿讀陶山微音有感詩韻并序」, 『克齋集』 권1 25b-26b. 정문연 소장 고서 NO. D3B 1770.)

49) 「도산십이곡」을 잇는 연시조류로는 沙村 張經世(1547-1615)의 「江湖戀君歌 前後六曲」, 屏谷 權渠(1672-1749)의 「屏山六曲」, 伴鷗翁 申遲(1706-1780)의 「伴鷗翁時調」, 安瑞羽(1664-1735)의 「楡院十二曲」, 存齋 李徽一(1619-1672)의 「楮谷田家八曲」 등이 있다. 이동영(1984),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01-117쪽 참조.

50)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君子の 學問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 이른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저 장경부가 말한, ‘위하는 바가 없이’하는 것이다. 우거진 숲 속에 있는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피우지마는, 스스로는 그 향기로운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군자의 자기를 위하는 뜻에 꼭 맞는 말로서, 마땅히 깊이 본받아 할 것이다.” 先生曰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一蘭草 終日薰香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言行錄 1 類編 教人 李德弘).

수 있다. 자신이 「도산십이곡」을 매개로 의도했던 교육적인 구도가 後人들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하기 바란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시조가 국문으로 된 당대의 유행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짓고서 교육적인 의도를 밝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논의를 새로이 전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은 교육의 교육을 의도한 전형적인 메타교육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메타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양상은 아주 복잡하다. 메타교육의 제 양상에 대해서는 교육학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¹⁾

	(A) X 교재(소재)	(B) L 배움의 세계	(C) T 가르침의 세계	(D) (T-L)
L	LX	LL	LT	(T-L)
T	TX	TL	TT	(T-L)
(T-L)	(T-L)X	(T-L)L	(T-L)T	(T-L)(T-L)

51) 이정연, 2004, 218쪽.

(A)의 세로에 해당하는 교육은 1차 교육이라고 한다. 즉 교재를 매개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1차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소위 집적된 지식을 매개로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구도이다. (B)-(D)가 모두 교육을 교재(소재)로 한 메타교육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B)의 경우가 교재를 배움에 두어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고, (C)는 교재가 가르침의 세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 (D)는 협동 교육 체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구도 자체를 모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메타 교육은 도식보다 훨씬 복잡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퇴계의 경우는 1차적으로 자신이 1차적인 교육을 목표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설정하여 교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르치는 자로서 교재에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자신이 학문에 뜻을 두고 학문을 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1차적인 교육구도에서 이미 “배우는 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즉 교재의 내용이 배움의 길,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메타교육 (B)의 양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했던 1차 교육의 모델을 제자들 혹은 후일에 이를 궁구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에 그의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에도 퇴계의 삶, 철학, 문학작품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1차 교육을 가르침의 교재로 삼음으로 하여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메타교육 (C)의 양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B)와 (C)의 양상이 퇴계 자신에게서 통합될 뿐만 아니라 당대 도산서원의 강학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동시에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상으로 많은 문학교육담당자들이 논의하고,

나아가 퇴계의 사상이나 삶 자체가 오늘날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것이 바로 고도의 복잡한 양상을 띠는 (D)의 메타교육 형식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메타교육적인 구도를 보더라도 퇴계가 1차 교육적 의도로서의 「도산십이곡」 창작보다는 좀더 교육적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 메타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 시조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으로 교육하고자 했던 의도와 의미를 「도산십이곡」과 「도산십이곡발」을 통하여 현대 시조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퇴계의 「도산십이곡」창작은 명백한 교육적 의도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의도한 1차 교육적 의미는 퇴계가 직접적인 교육자로서 시조라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문학교육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좁게는 자제에서 아동, 그리고 이들이 머물러 있는 학문 단계인 초학자를 설정하였다.
- (2) 교재로는 당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당대의 유행 노래인 시조를 선택하였다. 이는 당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다.
- (3) 교육 방법론은 노래를 통한 문학교육으로 노래의 교육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 (4) 교재의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설정한 인성교육에 적합하고, 이에 정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퇴계의 평생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퇴계는 이와 같은 1차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학교육적 구도

를 당대의 다른 유학자 및 후대인에게까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 교육이론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메타교육적인 것이다. 퇴계가 보여준 것은 다양한 메타교육적인 방법이였기에 퇴계의 작품과 삶이 지대한 교육적 가치를 오늘날까지도 지니게 된다. 이에 우리 고전시가의 시조 교육에 있어서 「도산십이곡」에 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누어 그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산십이곡」을 퇴계의 1차 교육의 목적에 따라 선조들이 추구했던 온유둔후한 인성교육의 교재로 삼아 가르치는 것이다. 시조를 통해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과 선조들의 정신세계와 문학의 내면화 과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퇴계가 의도했던 시조교육의 인성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고전시가교육론이나 문학교육론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²⁾

둘째로는 퇴계가 교재에 제시하고 있는 선택했던 삶과 배움의 방식이 오늘날의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퇴계가 교재인 「도산십이곡」에 제시한 내용은 자신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통합적 지식이며 인생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평생 경험을 통해 선택했던 삶의 목표와 배움에 대한 방법론을 보여줌으로써 피교육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내재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학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조 혹은 문학의 교육에서 교훈성을 강조하고 인성교육에서의 의의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 및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퇴계의 교육구도를 모델로 설정하여 오늘날에 그 의도를

52) 강명혜, 「시조교육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모형」,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되살려 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육적 의도로 선택, 창작된 교재는 바로 당대 영향력이 있는 시조로 유행하고 있는 노래이다. 시조의 선택은 당대의 노래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노래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온유둔후한 인성교육에 적당한 것으로서 퇴계의 평생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학문에 혹은 지식에 접근하는 배움의 자세와 삶의 선택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시가 아닌 노래로서 노래의 교육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의 시조교육은 현재 문화의 비판적 인식으로 창작된 자국 노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교육적 의미를 담은 자세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여 가창시키는 것도 퇴계의 교육 정신을 잇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퇴계가 시조교육을 통해 의도한 메타교육적 의미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문학교육과정 개발에 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한 가능태로서의 모델⁵³⁾ 현실 비판과 현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서의 내용 구성과 제시해야할 방법론으로서 모델이 된다.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란 집적된 지식이라기보다 정보라는 홍수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통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비취 볼 때 퇴계의 시조 교육론은 바로 시조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시조 즉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고 선택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시조 혹은 고전시가교육 또한 퇴계가 자신의 교육의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정신을 살리는 메타교육적 의미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53) 박인기, 28쪽.

〈참고문헌〉

- 李 滉 『陶山叢書』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____ 『退溪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8.
- ____ 「인행록」, 『국역 퇴계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8.
- 이가원, 『퇴계시 역주』, 정음사, 1987.
-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 강명혜, 「시조교육의 현황과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모형」,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
- 강창동, 『지식기반사회와 학교지식』, 문음사, 2003.
- 김덕현, 「시조문학의 교육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사립어문연구』 15, 사립어문학회, 2005.
- 박미영, 「歷代詩歌論을 통해 본 時調觀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4.
- ____ 「시조에 나타난 시조론(1)-‘메타시조’의 설정과 갈래인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5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 박인기, 「문학교육과정 개념의 이론적 함의」, 『선청어문』 21,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3.
- 설성수, 『지식활동분류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 출판부, 2000.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 ____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 신연우, 「사대부 시조와 ‘爲人’ ‘爲己’의 자연관」,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 오춘택,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退溪 教育思想 研究』,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동경, 『陶山十二曲의 분석을 통한 退溪 教育思想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이정연, 「퇴계 이황의 교육적 삶과 메타 교육」, 『교육원리연구』 9/1, 213-249쪽.
-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a.
- ____ 『학문과 교육(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b.
- 정순목, 『退溪正傳』, 지식산업사, 1982.
- ____ 『退溪의 教育哲學-교육인간학적 고찰』, 지식산업사, 1986.
- 조동일, 『韓國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 ____ 『한국문학통사』 2,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최신호, 「〈陶山十二曲〉에 있어서의 ‘언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 최진원, 『陶山十二曲攷』(I), 『인문과학』 13, 성대, 1984.

_____, 『陶山十二曲攷』(Ⅱ), 『도남학보』 7, 도남학회, 1985.

_____, 『陶山十二曲攷』(Ⅲ), 『인문과학』 14, 성대, 1985.

한창훈,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도산십이곡〉을 예로 하여」, 『한국시가연구』 8, 한국시가학회, 2000.

한형조, 「幽貞,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 『퇴계학보』 111, 퇴계학연구원, 2002.

허왕욱, 「문학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Abstract>

The Meta-Educational Implications of *Toson-Shibigok*

Park Mi-Young

Toson-Shibigok(Twelve Songs of Toson) which T'oegye, Yi Hwang, composed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terms of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se implications have become the essential part of *Gojeon Sigas*(classic songs and poems), and solid evidence has also been accumulated in the literature.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hat is, 1) to explore the impact of T'oegye's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first education at that time and 2) describe how these educational attitudes will eventually yield meta- educational values.

What T'oegye meant by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first education was that *Sijos* originated from his own experience should be the vital part of teaching method. One can say that T'oegye's teaching method is more integrative than that of modern literature education in that it includes songs. Not only using his own teaching method, but T'oegye tried to demonstrate his own literary structure to his colleagues and

the future generations. In the end, Meta-Education which comprises the heart of recent educational theories well reflects T'oegye's theoretical propositions. Rather than giving practical knowledge, his method offers the paradigms of thought patterns and shows the learners' attitudes in approaching the truth. Moreover, T'oegye's teaching method has become a good example to the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his contemporary followers. In sum, although a lot of years have passed since he died, T'oegye's *Sijo* works and life still have invaluable impact on the field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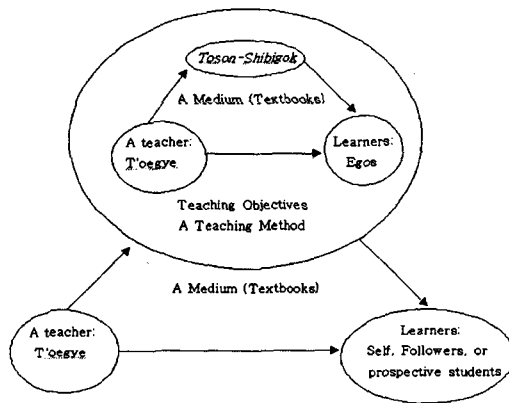


Figure 1. T'oegye's Theoretical Propositions on Meta-Education

Keywords : Yi Hwang, Toson-Shibigok(Twelve Songs of Toson), Toson-Shibigok bal(epilogue Twelve Songs of Toson), Meta-Education, Sijo-Education, Korean Verse Education